2016년 11월 15일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2017년 경남지역 지역경제세미나 개최 결과

□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「**경남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**」을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

○ 일시 : 11월 15일(수) 오후 3시~5시 30분

○ 장소 : 한국은행 경남본부 3층 강당

□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정영철 과장이 "경남지역 기계산업의 부진요인 분석 및 발전방향"을, 산업연구원 이동희 박사가 "경남지역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"을,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박사가 "경남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"을 주제로 발표*

* 주제발표 내용은 <붙임> 참조

○ 이어서 노상환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자들은 경남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경남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

□ 이날 세미나에는 한경호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, 최진 경남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하여 도내 기업, 금융기관,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논의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

○ 한경호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조선업 불황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경남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

- 자세한 내용은 "붙임" 참조 -

문의처 : 기획조사팀 최호식 과장
Tel : (055) 260-5083 Fax : (055) 260-5099 E-mail : gyeongnam@bok.or.kr

"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(http://www.bok.or.kr ⇒ 우측상단 지역본부 ⇒ 경남본부)

한국은행 경남본부

(붙임)

주제발표 주요 내용(요약)

(제1주제 : 경남지역 기계산업의 부진요인 분석 및 발전방향)

- 한국은행 경남본부 정영철 과장 -

□ 경남지역의 기계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,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

ㅇ 생산액, 부가가치, 업체 수,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, 이에 따라 경남경제 내 기계산업 비중도 축소

□ 이러한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외에 중국의 자급률 상승, 경쟁국과의 수출경합도 상승,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, R&D 투자 및 인적자원 육성 미흡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

□ 한편 경남지역 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은 불리한 수출입 단가구조와 자체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 부족 등으로 2012년 이후 수출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점차 약화

□ 이에 대응하여 기계관련 서비스 부문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, IT융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개선, 그리고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을 발전과제로 제시

(제2주제 : 경남지역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)

- 이동희 산업연구원 박사 -

□ 경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생산과 고용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 제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

ㅇ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할 필요

□ 연구결과 지역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용변동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ㅇ 이는 서비스업이 실업자를 흡수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남지역도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필요

□ 또한 경남지역의 주력 제조업과 유의미한 생산연계를 맺고 있는 운송, 금융보험, 과학기술관련전문서비스, 사업관련전문서비스, 사업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고도화와 이를 통한 지역내 수용성 제고 필요

□ 과학기술서비스, 연구개발 등 제조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집중 투자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하여 전체 서비스업의 저변을 확대

(제3주제 : 경남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)

-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박사 -

□ 컨텐츠 산업은 고성장·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부가가치 유발계수, 고용유발계수, 취업유발계수가 여타 주력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

□ 그러나 경남지역의 컨텐츠 사업체 수가 최근 3년간 감소하는 등 컨텐츠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

□ 침체된 경남지역 컨텐츠 산업의 부흥을 위해 재정, 조직 및 제도적 기반 구축, 지역밀착 컨텐츠 개발, 컨텐츠 산업 창업지원 등을 제안

< 세미나 진행 사진 >